

무안군, 소규모 농식품가공

농업인 워크숍 성료

지역 농식품 가공 활성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



무안군은 최근 구례군 자연드림 퍼크에서 소규모 농식품가공 농업인(더나음협동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식품가공 활성화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환경 변화

에 따른 농식품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소비자 니즈의 변화, 세계적 농식품 시장흐름 변화 및 농식품 확대방향을 파악하였다.

건강 지향적인 시장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비만, 심장질환, 알

러지 분야에서 소비자의 니즈

(Needs)를 반영한 R&D 방향 및 마케팅 전략을 교육하였다.

또한, 마케팅 전문가(LS 식품안전원 대표 이기표)와 함께 문화 및 의식, 숙박, 체험시설을 갖추고 치유와 힐링이 함께하는 구례 자연드림파크 생산공방의 시설을 견학하고, 농업인 기공 활성화 위하여 품목 그룹별 상품개발 정보와 공유를 통한 농식품 생산 제품 및 마케팅 사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산물가공 활성화 위하여 가공 모임체 육성은 물론, 제품개발 및 판매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산물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소비자 환경 변화에 따른 농식품 기공제품 생산 및 판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마케팅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SNS 홍보단’ 위촉식 가져

함평군은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함평군 SNS 홍보단’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SNS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홍보팀장, SNS 홍보단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단장·부단장 선출, 홍보단 운영계획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단장과 부단장은 각각 단원 후 선으로 선출됐으며, 곧바로 이어 진 홍보단 운영계획 협의과정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협의 결과 홍보단은 현재 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

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SNS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요시책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외부에 적극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다각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군 개입은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관광명소, 축제, 농·특산물, 맛집과 같은 분야별 콘텐츠를 홍보단이 직접 제작·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함평=김광준 기자

목포시, 생활에너지 해상운송 지원

도서주민들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었던 생활연료 수급이 한결 편해졌다.

목포시가 앞으로는 도서주민들이 이 생활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LPG 가스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일괄구입한 후 민간화물선을 임대하여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해상운송법이 개정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된다.

도서 주민들은 그동안 개인들이 연료를 구입해서 직접 운반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아울러, 목포시는 지역 연료 판

매조합과 협약을 체결해 도서지역 도 육지지역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 도서민들은 해상운송비 및 연료구입가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고, 생활연료를 더욱 편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교육 전문강사 주소해 강사는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 사례

영암군은 지난 5일 영암군교육청 소강당에서 2019년 어린이집 부모교육을 영암군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했다.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부모교육 전문강사로부터 소방안전 예방교육, 성희롱·이등학대 예방 교육과 우리가족 행복독서법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부모교육 전문강사 주소해 강사는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 사례

강진군, ‘문화가 있는날-공연산책’ 공모사업 선정

강진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19년 문화가 있는 날-‘공연산책’ 사업에 선정돼 1천 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전국 230여 문화예술회관 중에서 6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강진아트홀이 선정되어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가 있는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있는 주간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강진아트홀에서는 ‘온가족

이 함께 맛있는 아트홀’이라는 주제로 함께 듣고 보면 먹고 냄새 맡는 등 오감체험 콘셉트의 공연을 추진한다.

이에 오는 24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요리퍼포먼스 뺨줍는 포포 이자씨’, 10월 31일에는 라이브 콘서트 ‘10월의 마지막 밤’, 11월 28일에는 ‘클래식으로 듣는 우리 노래’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매 공연에는 쿠키와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

강진아트홀은 이번에 선정된 ‘문화가 있는날-공연산책’을 포함하여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6개 분야 1억 4천 500만 원, ‘문화예

술교육 사업’ 1천 100만 원, ‘꿈다락 예술감상사업’ 2천 500만 원, ‘전시해설인력지원사업’ 1천 800만 원 등 총 2억 1천 700만 원을 확보하였다. 또 공연을 지원 받는 사업으로 서울시예술단의 ‘합창콘서트’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낭만콘서트’, 국립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등 6개 분야 사업에 선정 되기도 했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공모사업 유치로 강진 군민들에게 고품격 문화 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지수를 높이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KTX 재정차 기념행사 연다

4년 만에 KTX 운행이 재개되는 오는 16일, 장성군이 이를 기념하기 위한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이날 새벽 KTX에 처음으로 승·하차하는 승객에게 축하의 엘로우 장미와 황금떡, 황금음료를 전달하는 ‘승객 축하 이벤트’가 6시 무렵에 진행된다.

그로부터 약 네 시간 뒤인 11시

에는 본격적인 기념식에 앞서 식 전행사로 농악 및 난타공연이 열려 주무대인 장성역 광장의 흥을 돋워준다.

이어지는 기념행사는 담양·영광군수 등 인근 지자체장 및 다수의 내외인사를 비롯해 유두석 장성군수와 1천여 명의 장성군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장성역 KTX 재정차

추진의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등에 이어 KTX 재정차를 환영하는 의미의 ‘박 터프리기’ 행사와 상무대 군악대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어서 첫 번째 KTX 하행선이 정차하는 12시 20분 무렵, 농약팀의 흥겨운 연주에 맞춰 다시 한 번 승하차 승객 환영 이벤트를 가진 뒤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장성=박종영 기자



영암군, 2019년 어린이집 부모교육 실시

영암군은 지난 5일 영암군교육청 소강당에서 2019년 어린이집 부모교육을 영암군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했다.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부모교육 전문강사로부터 소방안전 예방교육, 성희롱·이등학대 예방 교육과 우리가족 행복독서법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부모교육 전문강사 주소해 강사는

를 통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법, 읊바른 자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그리고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등을 교육하였고, 행복학교 전문강사 이상우 강사는 우리가족 행복독서법 주제로 가족독서법과 한국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신사임당의 가족독서법을 매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고 대화하는 교육으로 어린이집 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군, ‘꿈나무 구강 건강교실’ 운영

장흥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치아우식증에 취약한 어린이에게 ‘꿈나무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강건강교실은 치과예방 관리 중요성과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꿈나무 구강건강교실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5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치과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경험으로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소홀히 하는 어린이들에게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교육한다.

천연 가루치약 만들기, 역할놀이(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환자), 불소도포 바르기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치과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